

2026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선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중근) 주최 “2026년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제27차 정기총회”가 4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18(태화동)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중근 협의회 회장, 권주연 고문, 각 파종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 회장인사, 축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의안 심의, 기타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간단한 축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권 회장은 축사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앞으로 대종회 회장이 다시 선출되면 안동 권문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빨간색 점퍼를 입은 권기창, 김의승, 권광택 등 안동시장 예비후보자 3명과 권영백, 권기원, 김상선 등 시의원 예비후보 3명이 인사말을 하고 각각 자리를 떠났다.

이어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를 한 후 권중근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문



의 발전을 위해 단합을 해야 하며 새 회장이 선출되면 좋은 일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주연 고문은 축사에서 “앞으로 파종회장협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권기윤 사무국장은 작년 12월 26일 안동종친회관 회의실에서 제26차 임시총회를 갖는 등 지난 2011년 8월 31일 창립총회를 한 것을 비롯, 올해까지 모두 27차례의 총회 및 임시총회의 경과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했다. 또 권순복 감사의 감사보고와 권 국장의 2025년도 결산보고를 심의했다. 기타 토의에서 15개 파 별로 납부하고 있는 년 회비 40만원을 조정해서 올부터 년 회비 10만원을 낮춘 30만원을 받

기로 결정했다.

임원 개선에선 권오익 대종회안동사무국장 추천으로 현재 추밀공파 권오돈 회장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제7대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권오돈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파종회장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지 각 파종회장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병돈 추밀공파청관공종회 회장이 오는 5월 27일 안동권씨대종회 회장 선출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회장에 당선되면 업무개선, 족친 간 유대 강화, 능동장학회 활성화, 역사적인 인물 발굴 등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회의가 끝나자 주최 측이 마련한 타월 1장과 권기윤 사무국장이 준비한 750ml짜리 테사주(안동소주) 1병씩을 선물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

참석자들은 회관 1층에 있는 ‘양반밥상’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간고등어를 곁들여 점심을 먹었는데 이 자리에서 권중근 협의회장, 권주연 고문, 권오돈 신임회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제의를 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재선에 성공



상대후보인 이삼걸(민주당)한테 계속 뒤져 오다가 개표 56% 때부터 권 후보가 50.3%인 25,454표, 이 후보가 49.1%인 25,111표로 343표를 앞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개표 때 마다 표차이가 오르거나 내리다가 마지막 개표에서 권기창 후보가 50.9%인 44,239표, 이삼걸 후보가 49.1%인 42,634표로 1,605표 차로 권 후보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권기창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오늘의 결과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중단 없는 안동발전을 바라는 안동시민 여러분이 만들어 낸 소중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경쟁을 펼쳐주신 이삼걸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편 가르기와 갈등은 없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안동의 새 길을 열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국민의 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6월 3일 개표과정에서 권기창 후보가 초반 및 중반 초까지

안동원로원 임원들 안동권씨 후보자 선거사무실 방문 격려

안동권씨 안동원로원 임원 10명은 6.3 지방선거 9일을 앞두고 안동권씨 5명이 출마한 각 선거사무실을 방문, 위로 격려했다.

5월 25일 오후 2시 안동권씨 안동원로원(의장 권재주) 임원 10명이 국민의 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사무실에 있던 황순녀 여사(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부인)가 원로원 임원들을 맞이하였으며 권재주 의장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여 꼭 당선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원로원 임원들은 국민의 힘 안동시의원으로 출마한 권용덕 후보(강남, 임하, 남선) 사무실로, 권기원 무소속 안동시의원 후보(웅상, 송천) 사무실을 각각 방문, 위로 격려했다.

또 원로원 임원들은 국민의 힘 권백신 경북도 안동 제2선거구(동부권) 사무실을, 이밖에 국민의 힘 안동시의원으로 출마한 권기익 후보(와룡, 도산, 녹전, 임동, 예안, 길안) 사무실을 각각 방문, 위로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신중년의 품격, 근사한 일상을 경영하다

- 비움으로 시작하는 인생 2막 -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복아공파)



비로소 나다운 삶이 됩니다.
근사한 노후를 설계하는 태도
근사하다는 것은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은 깊이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주변도 존중하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를 가장 밀도 있게 살아내는 이들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와 웃었는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정성껏 경영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중년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오늘 하루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맺음말-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도록

근사한 일상은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부지런히 가꾸는 이의 것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시야는 넓어지고, 삶의 속도는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 속에서 비로소 나다운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노자의 말이 신중년의 나이에 비로소 몸으로 와닿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문자였던 그 말이, 살아온 날들의 무게와 함께 비로소 진심으로 읽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를 곁에 두고, 나를 지키는 습관으로 하루를 단단하게 세우십시오.

지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경영하는 것이 곧 인생 2막을 재설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줄이고 그 자리에 나를 향한 다정한 미소 하나를 채워 넣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 2막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안동권씨능우회 2026년 6월 격월회의 개최

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갑) 주최 “2026년 6월 격월회의”가 6월 9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육사로 ‘안동하늘소식당’에서 능우회원 총 35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권중익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권오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건강이 최고이니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고 회원들은 내년에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가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자 권 회장은 “능곡회가 내년에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안동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는 전국 시,군 가운데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원 이상 소요되자 시,군 마다 개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영주에서 제34회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마치고 청, 장년회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결과 또 안동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해서 수용한 것이다.



능곡회는 1회(1989년)를 비롯하여 13회(2001년), 33회(2024년) 등 세 차례 걸쳐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는 능곡회가 1989년 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까지 총 34회에 걸쳐서 시, 군 청장년회가 돌아가면서 개최하였다. 내년 전국체육대회는 예산 때문에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年 7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6.1. ~ 6.25. 총 납부자 13명 총 42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기철(경북 경주) 30,000	권병석(전북 정읍) 30,000	권영수(충북 제천) 30,000	권정귀(전북 정읍) 30,000	권해조(서울 서초) 30,000
권남희(서울 송파) 60,000	권영건(경남 창원) 30,000	권영일(충북 단양) 30,000	권주연(경북 안동) 30,000	
권덕용(부산 남구) 30,000	권영선(강원 강릉) 30,000	권오범(강원 강릉) 30,000	권종도(경북 포항)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대중회는 보학 관련 책자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 족친여러분!

대중회에서는 현재 보학 관련 책자 등 그 어떤 책자도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족친들로부터 보학 관련 책

자를 받았다는 전화가 대중회로 걸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중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점 주변의 다른 족친들에게도 널리 전파하여 보학 책자 판매와 관련된 사기행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중회